

# GWANGJU

## FOOTBALL CLUB

March 2014 / NO. 01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우승을 향한 그들의 날개짓은 시작됐다!”



### SEASON OFF

우리 광주FC가 달라졌당께~

광주FC의 NEW FACE

추운 겨울을 이겨낸 빛고를 전사들의 전지훈련

### INTERVIEW

이완, “목표는 도움왕!, 빛을 내보겠다!”

남기일 감독대행, “광주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다!”

광주 합류한 최성환 · 이종민, 챌린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 Next Home Match



광주 FC vs 부천 FC

03월 30일(일) 14:00



광주 FC vs 충주 험멜

04월 05일(토) 14: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 우리 광주FC가 달라졌당께~

광주FC가 달라졌다. 2013시즌 젊은 팀 컬러를 앞세워 K리그 챌린지 3위를 기록한 광주는 2014시즌 클래식으로의 승격을 위해 대대적인 리빌딩 작업에 들어갔다.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팀으로 새로운 판을 짜다. 지난 시즌 아쉽게 상주상무, 경찰축구단에 밀리며 리그 3위를 기록했지만 이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주, 경찰을 제치고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의 목표는 클래식으로의 복귀다. 2012년 강등의 아픔을 잊고 다시 클래식으로 승격해 제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클래식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클래식 선수들의 경험이 필요했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직접 선수 영입에 나서며 이완, 백민철, 최성환, 이종민, 송한복, 전준형, 김민수, 이진호 등 20명 이상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팀 전력을 강화했다. 스쿼드만 보면

경험적인 측면은 다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화했기에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조직력을 갖추고 남기일 감독대행이 원하는 하나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올 시즌 광주의 포인트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도 눈에 띈다. 지난해 활약했던 루시오, 루이지뉴와 결별하고 브라질 특급 듀오 호마링요와 파비오를 영입했다. 이들이 K리그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들이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다면 승격이라는 광주의 목표에 탄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광주는 2014시즌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모했다. 남기일 감독대행의 지도아래 동계 전지훈련을 충실히 소화했고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K리그 챌린지 개막이 눈 앞에 다가왔다. 과연 달라진 광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 기존 선수 (7명)

- GK : 제종현
- DF : 마철준, 박병주, 오도현
- MF : 여름, 임선영, 김호남

## IN 선수 (22명)

- GK : 백민철, 류원우
- DF : 전준형, 최성환, 이완, 김영빈, 이종민, 박진욱, 정호정, 정준연
- MF : 김민수, 김유성, 김우철, 송한복, 권수현, 송승민, 홍태곤, 이찬동
- FW : 호마링요, 파비오, 안종훈, 이진호





# 광주 FC의 NEW FACE는 누구?

광주 FC는 2014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빌딩 작업에 들어가며 이완, 최성환, 이종민 등 프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팀 전력이 한층 안정되고 강화된 가운데 프로에 첫 발걸음을 내민 신인 선수들도 광주에 합류했다. 이 선수들은 바로 홍태곤, 권수현, 송승민, 김영빈, 이찬동이다. 이들 신인 5인방은 광주의 경험 많은 선수들과 함께 젊은 패기를 내세워 광주의 클래식 승격을 돕겠다는 각오다. 이에 지금부터 광주의 신인 5인방을 소개하려 한다.

## 권수현 (1991.03.01 / 180cm, 68kg / MF / 아주대)

광주가 유일하게 자유선발로 지명한 권수현은 아주대학교 주장 출신으로 2012년 U-22 청소년 대표팀, 2013 덴스컵 대학선발대표를 경험한 미드필더다. 중원에서 볼 소유, 패싱, 압박 능력이 뛰어나고 도움 위주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슈팅력도 좋아 득점에도 일가견이 있다.

## 홍태곤 (1992.05.05 / 180cm, 76kg / MF / 홍익대)

홍태곤은 광주의 첫 대학 졸업 유스 출신(금호고)으로 주목이 필요한 선수다. 이미 2011년 광주의 우선 지명을 받은 뒤, 홍익대로 진학했고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전향하며 멀티 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신인다운 패기가 돋보이고 강력한 몸싸움과 높은 활동량이 돋보인다.

## 이찬동 (1993.01.10 / 183cm, 80kg / MF / 인천대)

광주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첫 지명한 이찬동은 인천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다 프로 무대에 합류한 미드필더다. 인천대 시절, 2012년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2013년 전국체육대회 은메달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특히 경기장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가담 능력이 뛰어나다.

## 송승민 (1992.01.11 / 188cm, 77kg / MF / 인천대)

드래프트 5순위로 지명된 송승민은 188cm의 장신 미드필더다. 좋은 체격조건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경기 장악 능력에 장점을 보인 선수다. 특히 장신임에도 발 밑이 강해 볼 배급과 축구 센스가 뛰어나다. 인천대에서 함께 활약한 이찬동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김영빈 (1991.09.02 / 184cm, 79kg / DF / 광주대)

광주가 뽑은 유일한 수비수인 김영빈은 6순위로 입단했다. 광주대 출신으로 2013년 2월 춘계대학연맹전에서 팀의 우승과 함께 최우수 수비상을 수상한 유망주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 광주 수비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김영빈

권수현

송승민

홍태곤

이찬동



# 추운 겨울을 이겨낸 빛고을 전사들의 전지훈련 스케치



등반대회



연습경기



일본 전지훈련 출국



골키퍼 훈련



일본 전지훈련



팀 미팅



추운 겨울을 이겨낸 빛고을 전사들의 전지훈련



# 광주 합류한 최성환 · 이종민, 챌린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광주 FC는 2014시즌 변화를 시도했다. 백민철, 최성환, 송한복, 김민수, 이종민, 이완, 전준형, 안중훈 등 클래식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젊음을 강조한 팀 컬러에 노련미를 더했다. 특히 K리그 우승을 경험한 바 있는 최성환과 이종민의 합류가 눈에 띈다.

수비수인 최성환은 2005년 대구 FC에서 프로에 데뷔해 2008년 수원삼성에서 K리그와 컵대회를 동시에 석권했고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FA컵 우승, 2012년 울산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하며 총 5차례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우승 청부사다. 광주에 합류한 최성환은 “그저 운이 따랐을 뿐” 이라고 말문을 열며, “올해 광주의 승격을 위해 꼭 힘을 보태겠다! 평소엔 운동장에만 들어가면 욕하는 성격이 있다. 동료들에게 막말을 하고 쓸데없는 파울로 팀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았다. 이젠 내 고집을 버리고 동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파이팅 넘치는 팀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만약 올해 챌린지에서 우승하면 K리그에선 모든 우승컵을 들어보게 된다. 진기록에 도전하겠다” 는 포부도 밝혔다.

최성환과 함께 광주에 합류한 이종민도 2002년 수원 삼성에서 프로에 데뷔해 울산, 서울, 상주를 거쳐 국내 정상급 수비수로 이름을 알린 선수다. 특히 오른쪽 수비뿐 아니라 공격적인 재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멀티 능력을 겸비했다. 실력도 인정받아 국가대표팀을 경험했을 만큼 그의 합류는 광주 전력에 힘을 보탬 것이다. 하지만 이종민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 대성하지 못했다. 부상 후 힘들게 재활을 마치면 또 재발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끊어져 1년 반을 쉬었다. 이에 대해 이종민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돌파구를 찾아 군 입대했지만 복귀하고도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다” 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 때, 남기일 감독대행이 손을 내밀었다. 이종민은 “남기일 감독님은 상대팀으로 만났을 뿐 따로 인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뭔가 알 수 없는 진심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주위의 그 누구보다 날 믿어주는 것 같아 고마웠고 광주에 온 뒤로도 참 잘 했더라는 생각만 든다” 고 말했다. 아픔이 많았던 만큼 올해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종민의 각오는 대단하다. 이종민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뒤 나도 모르게 부상 부위를 보호하려는 위축된 플레이를 펼쳤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과감해지려고 한다. 지난 2~3년 간 백업만 하느라 원하는 축구를 못했는데 올해는 그 소원을 풀고 광주와 함께 비상하겠다” 는 각오를 되새겼다.



광주의 승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파이팅 넘치는 팀 만들겠다.

## 최성환

- 포 지션 : DF
- 생년월일 : 1981년 10월 6일
- 신체조건 : 185cm / 78kg / O형
- 출신학교 : 배재중-배재고-전주대
- 프로데뷔 : 2005년 대구 FC
- 프로경력 : 대구-수원-울산
- 통산성적 : 107경기 2득점 2도움



이제는 좀 더 과감해지려고 한다.  
광주와 함께 비상하겠다!

## 이종민

- 포 지션 : DF
- 생년월일 : 1983년 9월 1일
- 신체조건 : 175cm / 68kg / O형
- 출신학교 : 서귀포중-서귀포고
- 프로데뷔 : 2002년 수원 FC
- 프로경력 : 수원-울산-서울-상주-서울수원
- 통산성적 : 195경기 10득점 17도움





# NAM, KI-IL

**광주 2년차 남기일 감독대행, “광주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다!”**

2년차 감독 남기일 감독대행을 2014년 시즌을 앞두고 만나봤다.

남기일 감독이 말하는 전지훈련과 광주 축구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기일 감독이 광주만의 축구 색깔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올 시즌을 기대케했다.

**Q. 이제 K리그 챌린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반, 설렘 반이에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설렘 마음은 있어요.

**Q. 동계 훈련의 진행 과정은?** 1, 2차 훈련 때는 선수들 체력에 신경을 썼어요. 선수단 변화가 컸기에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했어요. 3차 일본 전지훈련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생각하고 실전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전술적인 면을 가미시켰어요. 4차 훈련은 컨디션 조절과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Q. 동계 훈련 평가를 내리자면?**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네요(웃음)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어요. 그래도 첫 경기 대구FC전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했어요. 이제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서 선수들이 첫 경기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했어요.

**Q. 전지훈련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본 전지훈련 중 날씨가 정말 안 좋았어요. 눈이 많이 와 함께 차우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선수들에게 더 큰 자극이 됐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죠. 오히려 좋지 않은 날씨가 고맙더라고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선수들이 모여 끈끈함이 생긴 것 같아요(웃음)

**Q. 전지훈련 중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선수들이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번씩 보였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1부리그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정신적인 면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Q.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변화했는데, 조직력을 다지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것**



“팬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같은데?** 조직력이 단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약간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도 아직 완벽할 순 없잖아요. 선수들한테 지난 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Q. 전지훈련 중 가장 몸 상태가 좋은 선수는?** 대부분 선수들이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김민수 선수가 좋은 것 같아요. 김민수 선수가 가진 것도 많고 잠재력을 깨낸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올해 광주가 추구하는 축구 방향은?** 광주만의 색깔이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찬스를 많이 만들고 축구를 하는 선수도 즐겁고, 보고 있는 선수들도 즐거운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승패에 상관없이 모두가 잘했다는 박수를 받고 싶어요.

**Q. 첫 경기가 클래식에서 내려온 대구와의 원정 경기다. 첫 경기를 앞둔 소감** 작년엔 경찰축구단, 상주상무를 모두 상대해봤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1부에 있다가 2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후배라고 생각할 수 있죠?(웃음) 저희가 이미 챌린지를 경험했기에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Q. 홈 개막전인 부천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금 첫 5~6경기 정도 모두 구상하고 있어요. 부천전은 전술적으로 어떻게 나갈 지 생각된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점이 정신적인 면이라고 생각하기에 선수들과 함께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Q.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인 호미령요, 파비오는 어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처음 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시즌을 통해서 한국무대에 잘 적응한다면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올해 리그에서 꼭 이기고 싶은 팀이 있다면?** 전부터 이기고 싶어요(웃음) 상주가 있었다면 상주를 잡고 싶었는데 클래식으로 올라가서 속상하네요(웃음) 내년엔 승격하고 상주를 이기면 되겠네요?

**Q. 올 시즌 목표는?** 모두가 알고 있는 1부리그 승격이에요. 선수들하고 한 배를 탔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빨리 노를 저어갈 생각이예요.

**Q. 광주 팬들에게 한 마디!** 광주는 창단된 지 오래된 팀이 아니고 광주가 추구하는 축구 색깔이 없었어요. 팬들의 실망도 많았고 2부리그 강등에 대한 슬픔이 있잖아요. 물론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선수들이 모두 모여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각오가 있어요. 시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경기력도 높이고 싶고 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 확실히 팬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캡틴’ 이완**  
“목표는 도움왕!,  
빛을 내보겠다!”



**Q. 광주에 입단한 소감**

저는 광주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 과거 광주 상무에 있을 때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이 1부리그 승격을 위한 목표로 푼돌 뭉쳐있기에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Q. 주장으로 선임됐는데?**

처음에 주장으로 선임되고 선수들을 이끌면서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선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부담감은 없어졌어요.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 큰 어려움은 없어요.

**Q. 선수들과는 다 친해졌나?**

선수들과 같이 합숙하니까 더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운동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되니까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아요.

**Q. 가장 많이 도와주는 선수는?**

누구 한 명을 꼽아보라는 선배들은 저를 잘 챙겨주고 있고 후배들은 잘 따라와줘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Q. 톡톡 튀는 후배들은?**

여름 선수요. 성격도 밝고 유머도 있고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재미있는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Q. 일본 해외 전지훈련은 어땠나?**

경기를 통해서 조직력이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으로 조직력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이 워낙 선수들과 소통을 원하시고 잘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선수들과 감독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 소통을 해간다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Q. 군복무로 인한 상주 시절, 광주에서 데뷔골을 넣은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K리그 데뷔하고 3년 만에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데뷔골을 넣었어요. 그 때 부모님도 경기장에 오셨거든요. 당시, 순식간에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로 빨려 들어가서 얼떨떨했어요. 광주는 저에게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고 있어요. 빛고를 광주인 만큼 빛을 낼 수 있도록 팀을 이끌겠습니다!

**Q. 올 시즌 목표는?**

팀적으로는 우승하는 것이 목표예요. 내년엔 K리그 클래식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면을 보강해 욕심을 내서 도움왕을 하고 싶어요.

**Q. 광주 팬들에게 한 마디!**

광주 팬 분들이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축구를 즐기면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종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욱	DF 박병주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송한복	MF 권수현	MF 송승민	MF 홍태곤
							그리고 광주FC를 응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호마령요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중훈	FW 이진호		

## 2014시즌 홈 개막전 이벤트

- **경품** - 삼성전자 TV, 김치냉장고, 세탁기 총 3명
  - 우리밀 선물세트 1명
  - 중흥골드스파 숙박권 1명/ 물놀이 이용권 1명
  - 공진단 1명, 경옥고 1명, 지리산삼삼 6년근 1명
  - 광주 자동차극장 관람권 1명, 종합비타민 10명
- **식전행사** - 태권도 격파시범단 공연
  - 치어리더 "블랙캣" 공연
  - 프리스타일풋볼 모기공연
  - 여성 3인조(일렉티아) 전자현악기 공연
- **장외행사/이벤트**
  - : 손난로 증정 · 응원도구 막대풍선 증정 / 각 선착순 3,000명
- **장외행사/이벤트**
  - 응원걸개 만들기(남문게이트 옆)
  - 광주FC 사진전(남 · 북문 입구)
  - 전자현악기 공연(남문게이트 옆)
  - 프리스타일 풋볼 공연(남문매표소 옆)
  - 페이스페인팅(남,북문 입구)
  - 먹거리부스 운영 : 팝콘, 솜사탕나눔 선착순 4,000인분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4년 03월 13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